

문화

Culture

광주일보

제17622호 2006년 12월 8일 금요일

잃어버린 땅 대마도

답사기행전 17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잃어버린 땅 대마도’를 화폭에 담은 답사기행전이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과 (사)대동문화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마도 답사기행전 ‘! 대마도-잃어버린 우리 땅을 찾아서’가 17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열린다.

강종금, 김영화씨 등 지역 작가 14명이 참여한 이번 답사전은 화가들이 지난 9월 대마도 현지를 둘러보고 느낀 역사적 감흥과 선인들의 숨결을 담은 작품들로 꾸며진다.

참여작가는 라규체, 류재웅, 박구환, 송진영, 신수정, 장현우, 정명돈, 정상섭, 정순이, 조근호, 채관병, 흥성민씨 등이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문화학회 학술대회

오늘 조선대 중앙도서관 영상세미나실

한국문화학회(회장 한옥근 조선대 교수) 추계 학술대회가 8일 오후 4시 조선대 중앙도서관 영상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지난 5년간 광주 공연문화 현황을 점검할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유민영(단국대 석좌교수)씨가 ‘21세기 공연예술의 전망과 광주 지역 문화 인프라 활용방안에 대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또 임해철(호신대 교수), 김영학(조선대 강사)씨 등이 음악, 무용, 연극 등 각 장르별 현황과 발전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예향’ 자부심 지키는 전남도 남도예술은행 ‘토요경매’



지난 2일 열린 17회 토요경매에서 진행을 맡은 서선숙씨가 작품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거실에 그림 한점 어때요”

“작품번호 4번, 한국화 ‘도포리 들녘’은 63만원부터 (경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한 사람이 손을 들자) 한 분 나오셨습니다. 65만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63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지난 2일 한국 남종화의 산실인 진도 운림산방 진도역 사관에서는 50여명의 관광객과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작은 예술품 경매가 열리고 있었다.

이날 경매장에 나온 작품은 전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남도예술은행’ 소장품 30점.

경매를 진행하는 전남도청 공무원 서선숙(29)씨가 세 작품을 한데 둘이 작품설명을 할 기회가 해나갔다. 관광객들은 서씨의 작품설명을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크리스티, 소더비만 경매가 아니다. 남도의 오지지만 문향(文鄉), 예향(藝鄉)으로 이름이 높은 진도에서도 예술품 경매가 열리고 있다. 전남지역 전통 미술작가들의 창

진도 운림산방서 매주 경매

낙찰가격 30만~40만원대

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남도의 ‘토요 경매’가 횟수를 거듭하며 ‘시끌 예술장터’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남도예술은행’은 지난해 전남도가 ▲도내 미술문화 저변확대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 ▲안정적 생활기반이 없는 전업 미술작가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시스템이다.

남도 예향을 대표하는 한국화·서예·문인화 등 전통 미술분야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해 적립한 뒤 인터넷 사이트(www.nartbank.co.kr)와 매주 토요일 열리는 ‘토요 경매’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게 되도록 여려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하경남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지금은 ‘실험’ 단계여서 작가와 구매자들 다 민족시키는 것이 숙제”라며 “운영해 가며 점차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문제점을 보완, 일반인들에게 미술품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고 작가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작활동은 지난해 30명(한국화 12, 서예 11, 문인화 7)을 지원작가로 선정해 191점

을 구입했고, 올해는 38명(한국화 18, 서예 14, 문인화 6)을 선정, 이달에 170점을 구입하고 12월말에 추가로 207 점의 작품을 구입할 계획이다.

하경남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지금은

‘실험’ 단계여서 작가와 구매자들 다 민족시키는 것이 숙제”라며 “운영해 가며 점차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문제점을 보완, 일반인들에게 미술품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고 작가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여려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래 ‘토요 경매’를 실시해 한국화 36점, 서예 6점, 문인화 23점 등 총 65점을 판매, 2천 530여 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가장 많이 낙찰된 작품은 15호 미만 소품으로, 낙찰가격은 30만~40만원대였다.

전남도는 지난해 30명(한국화 12, 서예 11, 문인화 7)을 지원작가로 선정해 191점을 구입했고, 올해는 38명(한국화 18, 서예 14, 문인화 6)을 선정, 이달에 170점을 구입하고 12월말에 추가로 207 점의 작품을 구입할 계획이다.

하경남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지금은

‘실험’ 단계여서 작가와 구매자들 다 민족시키는 것이 숙제”라며 “운영해 가며 점차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문제점을 보완, 일반인에게 미술품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고 작가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여려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작활동은 지난해 30명(한국화 12, 서예 11, 문인화 7)을 지원작가로 선정해 191점을

구입했고, 올해는 38명(한국화 18, 서예 14, 문인화 6)을 선정, 이달에 170점을 구입하고 12월말에 추가로 207 점의 작품을 구입할 계획이다.

하경남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지금은

‘실험’ 단계여서 작가와 구매자들 다 민족시키는 것이 숙제”라며 “운영해 가며 점차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문제점을 보완, 일반인에게 미술작가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여려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작활동은 지난해 30명(한국화 12, 서예 11, 문인화 7)을 지원작가로 선정해 191점을

구입했고, 올해는 38명(한국화 18, 서예 14, 문인화 6)을 선정, 이달에 170점을 구입하고 12월말에 추가로 207 점의 작품을 구입할 계획이다.

하경남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지금은

‘실험’ 단계여서 작가와 구매자들 다 민족시키는 것이 숙제”라며 “운영해 가며 점차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문제점을 보완, 일반인에게 미술작가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여려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작활동은 지난해 30명(한국화 12, 서예 11, 문인화 7)을 지원작가로 선정해 191점을

구입했고, 올해는 38명(한국화 18, 서예 14, 문인화 6)을 선정, 이달에 170점을 구입하고 12월말에 추가로 207 점의 작품을 구입할 계획이다.

하경남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지금은

‘실험’ 단계여서 작가와 구매자들 다 민족시키는 것이 숙제”라며 “운영해 가며 점차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문제점을 보완, 일반인에게 미술작가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여려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작활동은 지난해 30명(한국화 12, 서예 11, 문인화 7)을 지원작가로 선정해 191점을

구입했고, 올해는 38명(한국화 18, 서예 14, 문인화 6)을 선정, 이달에 170점을 구입하고 12월말에 추가로 207 점의 작품을 구입할 계획이다.

하경남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지금은

‘실험’ 단계여서 작가와 구매자들 다 민족시키는 것이 숙제”라며 “운영해 가며 점차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문제점을 보완, 일반인에게 미술작가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여려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작활동은 지난해 30명(한국화 12, 서예 11, 문인화 7)을 지원작가로 선정해 191점을

구입했고, 올해는 38명(한국화 18, 서예 14, 문인화 6)을 선정, 이달에 170점을 구입하고 12월말에 추가로 207 점의 작품을 구입할 계획이다.

하경남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지금은

‘실험’ 단계여서 작가와 구매자들 다 민족시키는 것이 숙제”라며 “운영해 가며 점차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문제점을 보완, 일반인에게 미술작가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여려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작활동은 지난해 30명(한국화 12, 서예 11, 문인화 7)을 지원작가로 선정해 191점을

구입했고, 올해는 38명(한국화 18, 서예 14, 문인화 6)을 선정, 이달에 170점을 구입하고 12월말에 추가로 207 점의 작품을 구입할 계획이다.

하경남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지금은

‘실험’ 단계여서 작가와 구매자들 다 민족시키는 것이 숙제”라며 “운영해 가며 점차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문제점을 보완, 일반인에게 미술작가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여려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작활동은 지난해 30명(한국화 12, 서예 11, 문인화 7)을 지원작가로 선정해 191점을

구입했고, 올해는 38명(한국화 18, 서예 14, 문인화 6)을 선정, 이달에 170점을 구입하고 12월말에 추가로 207 점의 작품을 구입할 계획이다.

하경남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지금은

‘실험’ 단계여서 작가와 구매자들 다 민족시키는 것이 숙제”라며 “운영해 가며 점차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문제점을 보완, 일반인에게 미술작가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여려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작활동은 지난해 30명(한국화 12, 서예 11, 문인화 7)을 지원작가로 선정해 191점을

구입했고, 올해는 38명(한국화 18, 서예 14, 문인화 6)을 선정, 이달에 170점을 구입하고 12월말에 추가로 207 점의 작품을 구입할 계획이다.

하경남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지금은

‘실험’ 단계여서 작가와 구매자들 다 민족시키는 것이 숙제”라며 “운영해 가며 점차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문제점을 보완, 일반인에게 미술작가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여려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작활동은 지난해 30명(한국화 12, 서예 11, 문인화 7)을 지원작가로 선정해 191점을

구입했고, 올해는 38명(한국화 18, 서예 14, 문인화 6)을 선정, 이달에 170점을 구입하고 12월말에 추가로 207 점의 작품을 구입할 계획이다.

하경남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지금은

‘실험’ 단계여서 작가와 구매자들 다 민족시키는 것이 숙제”라며 “운영해 가며 점차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문제점을 보완, 일반인에게 미술작가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여려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작활동은 지난해 30명(한국화 12, 서예 11, 문인화 7)을 지원작가로 선정해 191점을

구입했고, 올해는 38명(한국화 18, 서예 14, 문인화 6)을 선정, 이달에 170점을 구입하고 12월말에 추가로 207 점의 작품을 구입할 계획이다.

하경남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지금은

‘실험’ 단계여서 작가와 구매자들 다 민족시키는 것이 숙제”라며 “운영해 가며 점차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문제점을 보완, 일반인에게 미술작가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여려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작활동은 지난해 30명(한국화 12, 서예 11, 문인화 7)을 지원작가로 선정해 191점을

구입했고, 올해는 38명(한국화 18, 서예 14, 문인화 6)을 선정, 이달에 170점을 구입하고 12월말에 추가로 207 점의 작품을 구입할 계획이다.

하경남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지금은

‘실험’ 단계여서 작가와 구매자들 다 민족시키는 것이 숙제”라며 “운영해 가며 점차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문제점을 보완, 일반인에게 미술작가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여려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작활동은 지난해 30명(한국화 12, 서예 11, 문인화 7)을 지원작가로 선정해 191점을

구입했고, 올해는 38명(한국화 18, 서예 14, 문인화 6)을 선정, 이달에 170점을 구입하고 12월말에 추가로 207 점의 작품을 구입할 계획이다.

하경남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지금은

‘실험’ 단계여서 작가와 구매자들 다 민족시키는 것이 숙제”라며 “운영해 가며 점차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문제점을 보완, 일반인에게 미술작가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여려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작활동은 지난해 30명(한국화 12, 서예 11, 문인화 7)을 지원작가로 선정해 191점을

구입했고, 올해는 38명(한국화 18, 서예 14, 문인화 6)을 선정, 이달에 170점을 구입하고 12월말에 추가로 207 점의 작품을 구입할 계획이다.

하경남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지금은

‘실험’ 단계여서 작가와 구매자들 다 민족시키는 것이 숙제”라며 “운영해 가며 점차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문제점을 보완, 일반인에게 미술작가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여려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작활동은 지난해 30명(한국화 12, 서예 11, 문인화 7)을 지원작가로 선정해 191점을

구입했고, 올해는 38명(한국화 18, 서예 14